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3선 연임 제한...자천타천 후보 난립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3선 초과 연임 제한으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계와 교육계 대학교육출신 등 각계분야에서 10여 명에 달하는 후보들이 자천타천 거론되며 뜨거운 경쟁구도가 예상된다.

교육감 후보 난립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부 후보 예정자들은 시민·교육단체와 연합체를 구성해 단일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석패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과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학장이 제도전하며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전 총장은 지난 2018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각축을 벌이다 2.3% 차이로 낙선했다.

광주교대 총장 재임시절 교원양성최우수대학, 장학금 수혜율 1위 등 업적을 달성해 능력을 인정받는 등 꾸준히 교육정책을 펼쳐 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책임교육을 담은 광주교육 2030 그랜드마스터 플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학장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 교무처장을 역임한 경력을 살려 대학 교양과정과 유사한 성격의 고교학점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 활동 시절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 하면서 광주공항(민간-공공형) 이전의 해법 제시하는 등 지



강동완



김선호



박주정



박혜자



이정선



이정재



정성홍



최영태

전교조·교육계·정치계·전 대학총장 등 후보군 10여명 거론

역의 현안의 방향을 제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교육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통합으로 이끌 복안을 갖고 있다.

정계 인사로는 호남대 인문사회대학 학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혜자 전 원장은 호남대 교수와 전남대 복지여성국장, 국회 교육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교육 경험과 행정실무를 탄탄하게 쌓았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임시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실무경험과 미래학습의 전환이 될 에듀테크 기반 구축에 일조했다.

대학교 총장 출신으로 강동완 전 조선평대 총장과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도 거론되고 있다.

강동완 전 총장은 조선평대 치과병원장, 학회, 국

무조정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실무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인문과 창의적 봉사를 추진한 융합 교육의 추진에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를 대한민국과 세계가 배우는 '광주 학교다. 대한민국의 학교다. 세계의 학교다'라는 개념으로 6대 교육 르네상스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은 초·중·고교 교사와 동강대 교수와 광주교대 총장 등 지난 40여 년 교육에 몸 담으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몸소 실천해 왔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2년 2010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명품 광주교육'을 목표로 광주실력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소통과 협업하는 글로벌인재양

성, 미래교육 전환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삼수에 도전한다.

이밖에 교육계에서는 김홍식 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출마도 점쳐진다.

김홍식 전 서부교육장은 사단법인 무등산보호 단체인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중등교장협의회, 광주시회장과 광주국립중등교장연수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로 경쟁하는 학교가 아닌 '함께 그러나 다르게 성장하는 진로학습공간으로 변화'를 교육 목표로 내세우며 건강하고 따뜻한 교육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주정 교육장은 일평생 교육계에 몸담으며 '꿈나물 교육'을 추진해왔다.

꿈나물 교육은 꿈나물에 꾸준히 물을 주듯,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기다려준다면 어느덧 성장해 있다는 그의 교육 이념을 담고 있다.

또 일선 교사 시절 학교부적응 학생 707명의 학생들을 10여 년 동안 데리고 살며 보살피는 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전교조에서도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선호 전 동아여중·고교 관선 이사장 등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민주학교 실현'을 가치

로 내세우며 교육감 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광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광주 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을 함께 일하며 교육 및 사회 현안 전반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 왔다.

김선호 전 이사장은 광주지역 중학교 교장·교감, 동아여중 관선 이사장 등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광주 교육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러 지난 2010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당선돼 4년 동안 시교육청의 경영 관리 실태를 감독했으며 다양한 시민 활동과 교육경력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밖에 지방문 전 전남대 총장과 정희곤 전 교육위원회 교육감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지방문 전 전남대 총장은 17대 국회의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정희곤 전 교육위원회는 30여 년 동안 교육계에 몸 담았

다. /이나라 기자

전남도교육감

현직 재선 vs 새 인물 교체...3자 대결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교육청의 새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는 현 장석용 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가 거론되며 삼자 경쟁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장 교육감은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으로 학교 민주주의 확대와 교실 수업 혁신, 교육협력 등 관료적인 전남교육을 변화시키겠다고 지난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학생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의 정상화의 대안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여론조사기관인 리

전교조 출신 후보군 비전교조 교장 격돌 예상

얼미터가 매달 실시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 5월 이후부터 31개월 연속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재선을 통해 위기의 전남교육을 정상화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장 교육감의 대항마로 떠오른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는 전교조 장립멤버이자 장 교육감과 같은 해직 교사 출신이다.

이후 지방자치에 입문해 3선 시의원과 최연소 목포시의장과 주민직선 1~2기 전남교육청 비서실장 등도 역임했다.

지난 30여 년간 교육, 정치, 행정, 시민사회 분

야를 두루 거치면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교육자치 분야에 남다른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식출마선언을 통해 '미래교육으로 작은학교 살리고 지역소멸 막겠다'는 첫 공약발표를 했다.

이 공약은 장 교육감 역점시책인 학교 통폐합과 상반되는 사업이다. 발표 당시 유권자들은 장 교육감과 반대되는 정책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김동환 대표는 현재 득량남초등학교 교장이다.

최연소 교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 대표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황이다.



장석용 김대중 김동환 김 대표는 전남도교육청 장학사와 전남초등교(원)감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강화 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국정통합교과서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교육실무경험과 교직원단체, 교육행정경험이 풍부

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남교육이 전교조 등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1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학력저하, 청렴도 하락, 교육현장의 피로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고 사회와 문화를 융합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 실현을 꿈꾸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월 말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전남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표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나라 기자

'무주공산' 진도...공직자 출신 선방할까

진도군수

진도군수 선거는 이동진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텅에 따라 후보 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진도 군수 선거에서는 공직자 출신들이 강세를 보여왔다.

민선 1, 2기는 전남도 공무원 출신, 3기 군수는 경찰 경무관 출신, 4기는 진도 부군수 출신, 민선 5~7기 군수는 공기업 출신인 이동진 현 군수가 각각 당선됐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으로는 김상현 전 진도군의회 의장, 김인정 전 진도군의회 의장, 박인환 전 중앙선관위 감사팀장, 이양래 전 진도군 기획조정실장, 이재각 전 총북지방방무청장 등이다.

제7대 전남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김상현 전 의장은 지역민과 접촉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2014년 진도군의회로 선출, 제8대 전반기 진도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22개 시·군 의장단을 초청, 시군 의회협의회의 회의를 진도군에서 개최해 진도



를 알리는 등 진도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기여했다.

김인정 전 진도군의회는 3선 군의원으로서 지난 제7대 후반기에는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인환 전 감사팀장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41년간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직 생활 이후 정년 퇴임했다. 이후 행정사 사무실을 열어 바둑 민심을 다지고 있다.

이양래 전 기획조정실장은 진도읍장·행정지원과장·세무회계과장 등을 역임하며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이재각 전 정장은 198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지원 기무부대장, 기무사령부 기획관리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2015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했다. 진도 출신으로 군과 정부에서 다양한 경험

을 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무소속 김희수 전 진도읍장은 두 차례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 전 읍장은 2018년 선거에서 이동진 현 군수와 대결을 벌여 패했으나 30%가 넘는 득표를 기록했다. 민선 5기 선거에서도 이동진 현 군수에게 302표 차이로 석패했다. 역대 진도군수 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선우·진도=박병호 기자

4선 도전 박우량...출향인사 출격

신안군수

신안군수 선거는 4번째로 군수 직에 도전하는 박우량 현 군수에 맞서 전남도의회 출신·출향인사들이 대항마로 거론된다.

박 군수는 민선 4기, 5기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민선 6기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민선 7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3선 연임 제한을 피했다.

박 군수는 섬의 독특한 생태를 관광자원화하면서 소금과 수산물 등 1차 산업에만 머물렀던 신안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점 추진한 '퍼플섬'은 외산에 소개되는 등 지역 최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으며,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 발전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만 30세 이하의 전임 시 바로 태양광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유입의 활로를 뚫었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3,000여 역원의 주민



소속 창출의 발판을 만들었다. 박우량 현 군수에 도전하는 후보군으로는 박석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가 있다.

박 상임감사는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전 부의장, 18·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조지 총무 부분부장을 맡는 등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전남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흥빈 전 전남도의원도 박 군수와 의 재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임 전 도의원은 3선(8·9·10대) 도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교육위원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8년 군수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 갈등으로 탈당, 무소속 출마했으나 패배했던 아픔을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민선 7기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천경배 전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일한 40대로 지난 선거 패배 이후 국

회·정부·광역·기초단체, 중앙당 등 핵심 역할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 연륜을 갖춘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현안에도 밝아 문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할 인물로 분류된다. 정광호 전남도의회는 현재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장과 섬진강·영산강 수계 호우피해 피아 특별위원회 등을 맡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선우·신안=이주열 기자